

AI 의료 영상 분석으로 뇌졸중 골든타임 늘린다



건강 바로 알기 뇌졸중 (AI 의료영상기술)

안성환

조선대병원 뇌졸중센터장(신경과 교수)

#.40대 남성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지러운 증상이 있더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이 힘이 없고 안 들리는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배우자가 뇌졸중을 의심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뇌출혈 여부 판단을 위해 CT 촬영을 실시하고 동시에 AI 솔루션을 구동 후, 분석된 CT 관류 영상으로 신속하게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을 진단했다. 환자는 적절한 시술과 입원치료를 받아 안정을 되찾아 퇴원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 성인 사망률 1~2위를 다투는 중증 질환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관건이다.

◇ 뇌경색과 뇌출혈의 구분=뇌졸중은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지며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된다.

2023년 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약 85%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이다 보니, 최근에는 뇌졸중과 뇌경색을 같은 말처럼 사용한다.

뇌 영상 기술·치료법 발전으로 뇌졸중 사망률 4위로 떨어져 AI 뇌관류 영상 통해 빠른 진단 골든타임 최대 24시간까지 확장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50세 이상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성인병의 조기 발병 등으로 인해 20~40대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 뇌졸중 전조증상=전조증상으로는 한쪽 팔과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되거나, 한쪽 팔다리가 멍멍하고 저린 다든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고, 못 알아듣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갑자기 눈이 안보이거나 둘로 보인다든지, 주위가 뻥 돌면서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걸음이 비틀거린다든지,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뇌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 부분이 담당하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신체의 운동 및 감각 마비, 시력장애, 언어장애, 어지럼증, 보행장애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뇌간 뇌졸중의 경우 어지럼증이 잘 나타나는데 빙빙 돌고 토할 것 같은 증상 이외에 다른 감각 이상, 힘 빠짐 등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뇌졸중 치료: 인공지능(AI) 의료 영상 분석으로 골든타임 극복=뇌졸중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 성인 사망률 1~2위를 다투는 중증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사망률이 4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뇌졸중 치료에 인공지능 영상 기술의 적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치료 시간을 놓치고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뇌졸중인지 잘 모르거나 병원에 빨리 도착했다라도 바쁜 응급실 상황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든타임을 소비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최근에는 AI 뇌 영상 기술의 도입과 뇌졸중 치료법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골든 타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단순 뇌 컴퓨터 촬영(CT) 영상만으로도 신속히 뇌경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ASPECTS)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빠르게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AI 뇌관류 영상을 통해 골든타임을 최대 24시간까지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재관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환 뇌졸중센터장은 "AI 영상 기술들을 활용하면, 골든타임이 지난 후 병원에 도착했다라도 혈전제거술 등의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며 뇌졸중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켜보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안성환 조선대병원 뇌졸중센터장이 AI기술로 분석한 CT관류 영상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 뇌졸중을 예방하는 9가지 생활 수칙 (질병관리청)

▲금연 하기 ▲술은 가급적 삼가기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기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줄이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

레스 관리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기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응급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응급 상황시 즉시 119 연락하기.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의사회,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 증진 협력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협약

광주시의사회(회장 최정섭)는 지난 7일 광주 의사사회관에서 광주이주민건강센터(센터장 윤현식)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양 기관은 시스템 구축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외국인 주민 친화적 보건,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 회송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지원단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광주광역시사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지난달 28일 외국인주민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지정

2027년 3월까지 운영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1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7년 3월까지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장애인 보

건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광주시는 지난 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 후 전남대병원을 재지정해 향후 3년간 운영을 맡겼다.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최인성 센터장은 "장애인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이 자가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grhmc.co.kr>)와 인스타그램([grhmc_](https://www.instagram.com/grhmc_))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또는 예비 장애인은 센터에 등록하고 건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62-220-4621-8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외국인 의사 546명...5년 반 새 21% 증가

올 6월 기준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외과 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늘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 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등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은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일 경우를 추가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